

내·외 통제성이 시설거주 노인의 관계적 공격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희정*, 조무신*, 김동현**

*고신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김천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 국문초록 —

목적 :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내·외 통제성이 시설의 노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 : 시설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하여 내·외 통제성과 관계적 공격성 인식을 조사하였다. 자료 수집은 설문지 165부를 배부하여 결측지와 중도포기 17부를 제외한 총 148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독립변인은 내·외 통제성의 내적 통제성과 외적 통제성, 종속변인은 부정적 행동과 괴롭힘 행동의 관계적 공격성, 통제변수는 노인의 일반사회학적 특성으로 구성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결과 :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시설 거주기간에 따라 내·외 통제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교육수준과 입소기간, 배우자의 유무, 경제수준에 따라 관계적 공격성 인식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내·외 통제성에 따른 관계적 공격성 인식의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넷째, 내·외 통제성은 관계적 공격성 인식에 영향을 주었다.

결론 :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시설거주 노인의 내·외 통제성과 관계적 공격성 인식은 차이가 있고 내·외 통제성에 따라 시설거주 노인의 관계적 공격성 인식도 차이가 있으며 내·외 통제성은 시설거주 노인의 관계적 공격성 인식 수준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내·외 통제성, 관계적 공격성, 시설거주노인

I. 서론

우리나라의 매년 증가하는 노인인구는 2020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5.7%를 차지하고 향후 5년 내에 20%를 초과하여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게 된다.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노인성질환자나 고령자를 위해 재가급여와 시설

급여를 제공한다. 이중 시설급여는 다시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구분되어 제공된다. 통계청(2021)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 기관수는 3,604개, 정원은 174,634명이고 노인요양시설 입소거주 정원은 5년 전보다 3만명 이상이 늘었으며 전체 시설급여수급자 중 42.7%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여 거주하고 있다(Han, Hwang, Park & Lee,

교신저자: 김동현(dreamk22@naver.com)

접수일: 2021년 3월 31일 심사일: 2021년 4월 09일 게재승인일: 2021년 4월 18일

2019; Ha, 2019).

가정에서 시설로 옮겨진 주거환경의 변화는 시설거주 노인에게 젊은 시절 체험한 노동시장이나 직장생활과 같은 집단생활에서의 적응을 필요로 하게 만들고 정서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내적 본연의 통제신념에 영향을 받게 된다.

Rotter(1966)가 밝힌 개인통제신념(personal control beliefs)이란 이론은 사회학적 학습을 기초로 하여 한 인간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의 조절을 의미한다. 개인통제신념은 내적 통제와 외적 통제로 구분할 수 있고 내적 통제는 인생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나 결과는 본인의 노력으로 나타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외적 통제는 인생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나 결과는 우연이나 외부의 힘으로 나타나는 의미를 가진다. 시설에서 거주하는 노인의 개인통제신념도 이 두 가지의 범주에 포함이 된다. 내적 통제성이 강한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뿐 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사건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감 있는 행동을 수행하는 반면(Phares, 1975), 내적 통제성보다 외적 통제성이 강하면 행동 반경이 좁아지고 좌절감이 높아지는 부정적 정서를 갖게 되고 이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Glass & Singer, 1972).

시설입소를 통해 거주하게 된 노인은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에서 제약을 갖게 되고 타인의 의존성이 높아지며 일상생활의 패턴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또한 시설의 주거환경 침해, 사생활의 침해, 거주로 인한 사회적 단절, 고립감 등을 야기하게 된다(이은희, 2018). 변화된 환경에 수반되는 개체간의 관계적 공격성은 관계 손상 또는 관계 손상의 위협이 위협의 수단으로 작용하는 모든 행동을 나타낸다(Crick, Ostrow & Werner, 2006).

공격성이란 인간이나 특정 물건을 대상으로 잠재적으로 물리적 또는 정서적 피해를 유발시키는 고의적인 행동으로 신체적 행동이나 언어적 행동으로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고(Coccaro, 1998) 인간의 심리적인 요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불안감이나 스트레스의 표출방법으로 나타난다. Crick과 Grotmeter(1995)는 관계적 공격성(예: 우정 탈퇴 위협)을 관계, 우정 또는 집단포용에 대한 관계나 감정에 대한 손상(또는 손상의 위협)을 통해 다른 사람을 해치는 행동으로 식별함으로써 사회적 공격성의 정의를 확장하였다.

관계적 공격성은 일반적으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연구의 척도로 사용되어 왔고 최근에 와서야 성인들의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Nelson,

Springer, Nelson, & Bean, 2008). 관계적 공격성은 남성에게서 잘 나타나는 외현적 공격성과 달리 여성에게서 잘 나타나고(Bjorkqvist, Osterman, & Lagerspetz, 1994) 개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압박하고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내현적 행동(covert behavior)을 배우면서 발달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사회 발전의 자율성이 결여된 개인은 더 많은 수준의 관계적 공격성을 가지게 된다.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 사이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피해자는 주변인들에게 인격적 무시나 따돌림을 당하는 경향이 강하며(Crick & Grotmeter, 1995) 폭력적 행동의 공격성보다는 부정적 행동이나 괴롭힘 행동을 통한 공격성이 지배적이다(Hawker & Boulton, 2000).

본 연구의 목적은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내·외 통제성이 시설의 노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노인요양시설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치료사의 성공적 중재 접근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01월까지 3개월간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시설거주 노인 148명을 대상으로 내·외 통제성과 관계적 공격성의 설문을 실시하였다. 적합한 표본크기를 구하기 위하여 G-power 3.1.3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효과크기 .5, 유의수준 .05로 설정하여 대상자 수를 정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진행에 앞서 대학의 연구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IRB 승인번호(KU 2020-0015)를 사전에 취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은 개인별 면담을 통하여 작성되었고 연구목적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한 시설거주 노인 165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결측치 및 중도에 포기를 희망한 경우를 제외한 총 148명의 설문을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빈도분석을 통한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여성이 72.3%로 남성보다 많았고 연령은 75세 이상의 노인이 87.9%로 74세 이하의 노인보다 많았으며 학력수준은 무학이 46%, 초등학교 졸업이 3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시설의 입소기간은 25개월 이상이 27%, 7개월에서 12개월 사이가 24%로 높았고 배우자는 없는 경우가

Table 1. Analysis of Population Sociology Charac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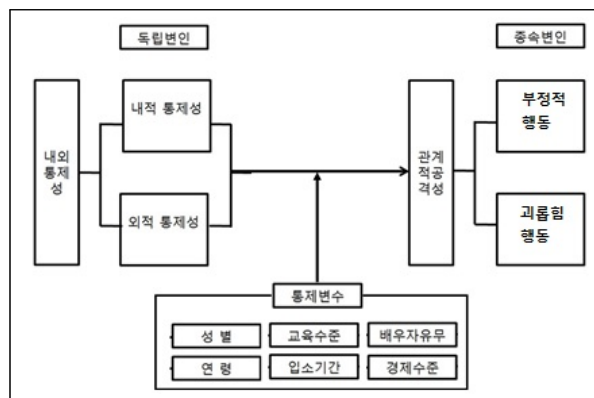
(n=148)

Division	Classification	Frequency(%)
Gender	male	27.7
	female	72.3
Age (years)	64~74	12.2
	75~	87.9
Academic Background (graduation)	no	46.6
	primary school	34.5
	middle school	8.8
	high school	7.4
	university	2.7
Entrance Period (months)	~6	18.3
	7~12	24.3
	13~18	11.5
	19~24	18.9
	25~	27.0
Spouse	existence	21.6
	nonexistence	78.4
Economic Level	sufficiency	54.7
	insufficiency	33.1
	excessively hardship	12.2

78.4%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보다 높았으며 경제적 수준은 현재 충분하다고 답한 경우가 54.7%로 가장 높았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2.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독립변인은 내적 통제성과 외적 통제성의 내·외 통제성으로 정하였고 종속변인은 부정적 행동의 공격성과 괴롭힘 행동의 공격성의 관계적 공격성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 연령, 교육수준, 입소기간, 배우자 유무, 경제수준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Picture 1).



Picture 1. Model of Research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 연구가설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시설거주 노인의 내·외 통제성과 관계적 공격성 인식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 연구가설 2. 내·외 통제성에 따라 시설거주 노인의 관계적 공격성 인식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 연구가설 3. 내·외 통제성은 시설거주 노인의 관계적 공격성 인식 수준에 영향을 줄 것이다.

3. 연구 도구

1) 내·외 통제성

내·외 통제성 설문은 Rotter(1966)가 개발하여 사용한 Internal-External Control Scale(I-E Scale)를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허구 문항을 제외한 각 문항을 한 쌍으로 구성된 15개의 문항으로 제작되었다. 설문의 답의 일관성을 줄이기 위해 내적 통제성에 해당되는 답을 1번, 2번이 섞여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내적 통제는 1점, 외적 통제는 0점으로 총 15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9점 이상은 내적 통제성이 높은 상태를 나타내고 8점 이하의 외적 통제성이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40이었다.

2) 관계적 공격성 인식

관계적 공격성(Relational Aggression)은 노인요양시설의 노인들에게 물리적 공격행위를 배제한 관계적 악영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관계적 공격성의 피해척도를 이용하여 시설거주 입소노인의 부정적 행동과 괴롭힘 행동의 인식을 통한 자기보고 형식의 설문문을 사용하였다. 설문문은 Einarsen과 Hoel(2001), 그리고 Questionnaire와 Olweus(1996)이 사용한 부정적 행동 척도와 괴롭힘 행동 척도를 수정하여 입소노인들을 대상으로 사용한 Min(2012)의 관계적 공격성 설문 10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각 5문항씩 부정적 행동과 괴롭힘 행동으로 구분되어 분석가능하게 구성되었다. 설문의 각 문항에서 월 기준으로 5회 이상은 5점, 4회는 4점, 2~3회는 3점, 1회는 2점, 0회는 1점으로 점수화 가능하게 하였고 총합 50점 만점으로 구성하였다. 점수는 높을수록 시설의 노인들 사이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42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입력, 자료의 오류교정 및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WIN 18.0을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내·외 통제성과 관계적 공격성 인식 수준의 차이는 그룹 수에 따라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한 상태에서 내·외 통제성의 영역과 관계적 공격성 영역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한 상태에서 내·외 통제성 영역이 관계적 공격성 인식 수준에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내·외 통제성의 비교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내·외 통제성의 비교 결과, 입소기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p=.002$),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경제수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Table 2. Comparison on Internal and External Control that Followed by Population Sociology Character

Division	Classification	$M \pm SD$	t/F	p	Duncan post.
Gender	Male	8.10±2.22	.768	.444	-
	Female	7.75±2.57			
Age (years)	64~74	8.61±1.94	1.406	.162	-
	75~	7.74±2.53			
Academic Background (graduation)	No	8.04±2.82	.471	.757	-
	Primary School	7.51±1.75			
	Middle School	7.85±2.76			
	High School	7.82±2.99			
Entrance Period (months)	University	8.75±2.22	4.491	.002**	e) > c,d) b) > a
	~6	6.56±2.06			
	7~12	7.28±2.19			
	13~18	8.24±1.86			
	19~24	8.18±2.75			
Spouse	25~	8.83±2.60	.884	.378	-
	Existence	8.19±2.56			
Economic Level	Nonexistence	7.75±2.46	.461	.632	-
	Sufficiency	7.72±2.16			
	Insufficiency	8.12±2.68			
	Excessively Hardship	7.67±3.24			

* $p < .05$, ** $p < .01$, *** $p < .001$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관계적 공격성 인식의 비교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관계적 공격성 인식을 비교한 결과, 교육수준($p=.015$), 입소기간($p=.000$), 배우자 유무($p=.000$), 경제수준($p=.000$)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성별, 연령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3. 내·외 통제성에 따른 관계적 공격성 인식의 비교

내·외 통제성에 따른 관계적 공격성 인식의 비교 결과, 시설거주 노인들의 부정적 행동, 괴롭힘 행동, 그리고 관

계적 공격성의 인식은 모두 내·외 통제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able 4).

4. 내·외 통제성의 영역과 관계적 공격성 인식 영역의 상관분석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한 상태에서 내·외 통제성의 영역과 관계적 공격성 인식 영역의 단순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내적 통제성은 외적 통제성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고, 부정적 행동 인식은 괴롭힘 행동 인식, 관계적 공격성 인식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고, 괴롭힘 행동 인식은 관계적 공격성 인식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다(Table 5).

Table 3. Comparison on Relational Aggression's perception that Followed by Population Sociology Character

Division	Classification	$M \pm SD$	t/F	p	Duncan post.
Gender	Male	16.37±5.28	-1.647	.102	-
	Female	17.81±4.58			
Age (years)	64~74	17.67±6.15	.192	.849	-
	75~	17.38±4.62			
Academic Background (graduation)	No	18.80±4.94	3.181	.015*	a> b,c,d> e
	Primary School	16.28±4.23			
	Middle School	16.85±5.19			
	High School	16.00±4.22			
Entrance Period (months)	University	13.75±4.79	74.667	.000***	e> d> c> b> a
	~6	12.00±2.20			
	7~12	14.33±2.63			
	13~18	16.41±2.62			
	19~24	20.42±3.02			
Spouse	25~	22.15±3.11	-4.411	.000***	-
	Existence	14.28±4.26			
Economic Level	Nonexistence	18.28±4.61	31.638	.000***	c> b> a
	Sufficiency	15.28±3.95			
	Insufficiency	18.88±4.17			
	Excessively Hardship	23.00±4.09			

* $p<.05$, ** $p<.01$, *** $p<.001$

Table 4. Comparison on Relational Aggression's perception that Followed by Internal and External Control

	Classification	$M \pm SD$	t/F	p
Negative Behavior	Internal Control	8.20±1.87	7.135	.000***
	External Control	6.06±1.69		
Bullying Behavior	Internal Control	12.61±2.61	8.003	.000***
	External Control	9.39±2.20		
Relational Aggression	Internal Control	20.82±4.45	7.707	.000***
	External Control	15.46±3.84		

* $p<.05$, ** $p<.01$, *** $p<.001$

Table 5. Correlation between Control region and Relational Aggression region

	Internal Control	External Control	Negative Behavior	Bullying Behavior	Relational Aggression
Internal Control	1				
External Control	.738***	1			
Negative Behavior	-.089	.249	1		
Bullying Behavior	-.205	-.004	.458**	1	
Relational Aggression	-.151	.182	.929***	.755***	1

** $p < .01$, *** $p < .001$

Table 6. The effect of Internal and External Control on the Relational Aggression's Perception (n=148)

Independent Variables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B	SE	β	
Constant	.351	.451		.761
Internal Control	-.167	.048	-.722	-3.491**
External Control	.352	.101	.722	3.493**
R ²			.210	
F value			6.782	

* $p < .05$, ** $p < .01$

5. 내·외 통제성이 관계적 공격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한 상태에서 내·외 통제성이 시설거주 노인의 관계적 공격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상관계수가 0.8이상을 넘는 항목이 없었고 VIF 값은 2.759로 다중공선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더 빈-왓슨지수는 1.840으로 자기상관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내적 통제성과 외적 통제성은 관계적 공격성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내적 통제성과 외적 통제성의 유의확률은 각각 유의수준 5%하에서 유의하였으므로 추정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p < .01$)

$$Y = .351 + -.167 * \text{interanl control} + .352 * \text{external control}$$

IV. 고 찰

인간에게서 노화는 거부할 수 없는 진행과정이며 노화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803만 명이며 20년 후인 2040년에는 1600만명 이상으로 증가될

을 예측하고 있다(통계청, 2020). 이와 더불어 고령자와 노인질환자의 증가로 이어지는 노인 인구의 변화는 국가적 복지차원에서 시설급여 확대의 필요성으로 나타나고 노인복지의 정책방향과 형태에 영향을 준다.

본 연구는 노인의 시설급여 대상자 중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중 65세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시설거주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내·외 통제성에서 입소기간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경제수준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입소기간이 길어질수록 외적 통제성보다 내적 통제성 성향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었다. 입소기간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과 관계가 있지만 자유롭지 못한 환경은 입소 초기의 외적 통제성 성향이 입소기간이 길어지면서 내적 통제성 성향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경에 적응하고 수궁해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반대되는 연구도 있다.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Jeon(2016)의 연구에서는 입소기간이 길어지면 정서적 심리적 특성의 영향은 감소하고 교육, 학습을 통한 요인들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건강상태와 평균 입소기간을 참고하여 입소기간을 6개월 단위로 2년 전후로 구성하였지만 Jeon의 연구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10년 미만과 10년 이상으로 구성하여 연구하였다. 시설거주 노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정서적 특징 중 하나인 통제성은 10년 이후까지 노인성질환자나 고령자인 대상자들이 정상적인 지각과 인지형성이 가능함을 보장하기 힘들기 때문에 2년을 기준으로 시행하였다.

아동이 나이가 들면 신체적 공격은 감소하는 반면, 청소년기 초기까지 더 치밀하고 잠재적이며 사회적으로 수용될만한 공격행동의 사용이 증가한다. 관계적, 사회적 공격성은 청소년 초기에서 중기까지 증가하고 성인부터는 빈도가 감소하기 시작한다(Murray, Nelson, Ostrov, Casas, & Crick, 20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격적 행동은 여전히 일어나고 성인의 발달 결과와 관련이 있다. 이 중에서 관계적 공격성은 특히 생활 보조 시설에 사는 노인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고(Trompeter, Scholte, & Westerhof, 2011). 특징적으로 여성의 공격 형태는 언어적 공격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Nelson, Springer, Nelson, & Bean, 2008).

본 연구에서는 시설거주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관계적 공격성 인식에서 교육수준은 학력이 낮을수록 시설거주 노인들 사이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정도가 심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경제수준은 매우 어려운 노인이 경제적 수준이 충분하거나 부족한 경우보다 시설거주 노인들 사이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정도가 심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Seong와 Kim(2018)도 무학이나 초등학교를 졸업한 여성노인이 중학교 졸업 이상의 노인보다 관계적 공격성이 높다고 하였다. 경제적 수준은 학력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교육수준과 경제적 수준으로 인한 감정적 조절 능력, 그리고 이타심, 타인의 존중과 배려심, 자존감 등 여러 가지 배경적 지식은 정서적인 면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관계적 공격성 인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입소기간은 입소기간이 오래될수록 시설거주 노인들 사이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정도가 심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사회적 수용에 대한 지각적 편견이 관계적 공격성과 정적(positively)관계가 있고, 이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유지가 된다. David(2001)는 정적으로 편향된 자기주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높은 수준의 관계적 공격성을 예측할 수 있으며 지각적 편견의 상승은 관계적 공격성의 증가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지각적 편견이나 관계적 공격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적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지만 시설이란 제한되고

한정된 공간에서는 안정적인 변화를 추구하게는 힘들 것이라 생각된다. 배우자 유무는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배우자가 있는 노인보다 시설거주 노인들 사이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정도가 심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Kim과 Lyu(2019)도 배우자 사별여부와 노인의 죽음불안에 관한 연구에서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배우자가 있는 노인보다 불안지수가 더 높다고 하였다. 시설거주 노인의 배우자 유무는 불안과 관련성을 지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안감은 시설거주 노인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관계적 공격성을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인식하게 될 것이다. MMSE에 기초한 인지장애는 불안을 예측하는 가장 유의한 예측인자로서 인지장애가 높을수록 불안의 발생률이 높다(Beck, Frank, Chumbler, O'Sullivan, Vogelpohl, & Rasin, 1990). Hall과 O'Conner(2004)도 불안과 인지장애는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시설거주 노인은 고령자나 노인성질환자로서 인지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인지기능은 공격행동의 발현에 주요한 요인이고, 사회적 연결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인의 인지기능 저하는 자신이 의도한 의미를 적절히 전달하고 소통하는 능력에 제약을 주어, 좌절하게 되고 직접적으로 공격 행동을 촉발시킨다. 인지상태는 또한 개인이 사회적 관계에 마주치거나 이해하는 방식을 구조화시키고, 이것은 더욱 간접적으로 공격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억력, 집중력, 언어, 시공간 기술과 같은 기본적인 인지기능의 감소는 개인의 소통 전략 양식을 바꾸어 타인과의 관계에 제한을 줄 수 있다(Algase, Beck, Kolanowski, Berent, Richards, & Beattie, 1996). 노인요양시설의 거주 노인들에게서 일어나는 물리적 공격성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일이며 인지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노인이 부당한 처우나 공격을 받기 쉽다(Rosen, Pillemer, & Lachs, 2008).

노인요양시설 거주자의 평균 15.6%가 공격적 행동을 보인다. 그 중 가장 빈도가 높은 언어적 공격(12.4%)은 소리 지르기 형태이다. (Lachs, Rony, & Teresi, 2012). 공격적 행동이 있는 시설의 환경적 변화에 긍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개인의 내적 통제성은 시설 안에서 높은 수준의 사회적 교류와 서로 간의 긍정적 행복을 유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외 통제성에 따른 관계적 공격성 인식 수준을 비교하였고 내적 통제성의 노인이 외적 통제성의 노인보다 시설거주 노인들 사이에서 부정적 행동과 괴롭힘 행동을 포함한 관계적 공격성의 정도가

심하다는 인식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시설의 거주자 간 공격성은 한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에게 의도적으로 유해한 자극을 전달하는 것이므로(Patel & Hope, 1992) 노인의 공격성은 노인요양시설 거주에서 삶의 질과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측과 예방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개인적인 성격 특징은 30세 이후 변화가 적기 때문에(Terracciano, McCrae, Brant, & Costa, 2005) 시설의 예방책과 더불어 개개인의 상담과 교육을 통한 내적 통제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자기 보고식의 설문지를 사용하여 대상자들의 개인적 응답 경향이나 주어진 주변 환경, 일어난 사건 등으로 편향된 기입의 가능성이 있다. 둘째, 시설입소 노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대상자 수에 제한이 있었다. 향후 대상자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대상자의 객관성과 대표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자아 본연의 내·외 통제성이 스스로 인지하고 지각하는 관계적 공격성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고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어떤 영역이 내·외 통제성과 관계적 공격성 인식에 연관이 있는지를 밝힘으로써 시설거주 노인의 지역사회작업치료의 접근과 개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V. 결 론

본 연구는 시설에 입소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내·외 통제성이 노인들의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지역의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148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시설거주 노인의 내·외 통제성과 관계적 공격성 인식은 차이가 있고 내·외 통제성에 따라 시설거주 노인의 관계적 공격성 인식도 차이가 있으며 내·외 통제성은 시설거주 노인의 관계적 공격성 인식 수준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갈수록 증가하는 노인인구는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시설입소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시설입소로 인해 새로운 조직에 편입되는 노인은 젊은 시절 체험한 노동

시장이나 직장생활과 같은 집단생활에서의 적응을 필요로 하게 만든다. 개인의 정서적 요소 중 하나인 내·외 통제성은 구성원 간의 융화와 화합 그리고 시설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노인시설의 작업치료 중재에 있어 노인의 내·외 통제성 관리가 치료효과에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ACKNOWLEDGMENTS

The work was supported by research grant of the Kosin University in 2020.

REFERENCES

- 통계청(2020). 2019년 장애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 국인 인구전망: 2017~2040.
- 통계청(2021). 연도별 시도별 급여종류별 장기요양기관 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0&tblId=DT_35006_N019&vw_cd=MT_ZTITLE&list_id=350_35006_A004&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2020. 11. 10.
- Algase, D. L., Beck, C., Kolanowski, A., Whall, A., Berent, S., Richards, K., & Beattie, E. (1996). Need-driven dementia-compromised behavior: An alternative view of disruptive behavior. *American Journal of Alzheimer's Disease. November/ December*, 10-19.
- Beck, C., Frank, L., Chumbler, N., O'Sullivan, P., Vogelpohl, T., & Rasin, J. (1998). Correlates of disruptive behavior in severely cognitively impaired nursing home residents. *The Gerontologist*, 38, 189 - 198.
- Bjorkqvist, K., Osterman, K., & Lagerspetz, K. M. J. (1994). Sex differences in covert aggression among adults. *Aggressive Behavior*, 20, 27 - 33.
- Coccaro, E. F. (1998). Impulsive aggression: A behavior in search of clinical definition. *Harvard Review of Psychiatry*, 5(6), 336-339.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 Development, 66*, 710–722.
- Crick, N. R., Ostrov, J. M., & Werner, N. E. (2006). A longitudinal study of relational aggression, physical aggression, and children's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4*(2), 131 - 142.
- David, C. F. (2001).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perceptual bias and interpersonal aggression among children*. The Florida state university.
- Einarsen, S., & Hoel, H. (2001). The negative acts questionnaire: Development, validation and revision of a measure of bullying at work. *10th European Congress on Work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Prague*, 16–19
- Glass, D. C., & Singer, J. E. (1972), *Urban stress*. New York; Acaedmic.
- Ha, S. C. (2019). The factors affecting the elderly's preferences for types of care: focusing on family care, professional home care, and institutional care. *Social Welfare Policy, 46*(2), 27–55.
- Han, E. J., Hwang, R. H., Park, S. Y., & Lee, J. S. (2019). Comparison of caregiving burdens among family members by the type of benefits in long-term care. *Korea Social Policy Review, 26*(3), 93–116.
- Hawker, D. S., & Boulton, M. J. (2000). Twenty years research on peer victimization and psychosocial maladjustment. *A meta-analytic review of cross-sectional studie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1*, 441–455.
- Hall, K. A., & O'Conner, D. (2004). Correlates of aggressive behavior in dementia.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s, 16*, 141 - 158.
- Jeon, H. S. (2016). An Exploratory Analyses on Factors related to Mental Health Confidence among Individual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Focusing on the Differences by the Length of Hospitalizatio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6*(3), 563–574.
- Kim, K. H., & Lyu, J. Y. (2019). The Effects of Spousal Bereavement and Complicated Grief on Death Anxiety among Older Adult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9*(1), 21–35.
- Lachs, M., Rony Rosen M., Teresi J. A. (2012). Verbal and Physical aggression directed at nursing home staff by residents. *J Gen Intern Med, 28*(5), 660–667.
- Min, J. S. (2012). *Effect of relational aggression on adaptation of elderly residents to charity nursing home*. master's degree, Yonsei University.
- Nelson, D. A., Springer, M. M., Nelson, L. J., & Bean, N. H. (2008). Normative beliefs regarding aggression in emerging adulthood. *Social Development, 17*(3), 638 - 660.
- Murray-Close, D., Nelson, D., Ostrov., J. M., Casas, J. F., & Crick, N. R. (2016). *Relational aggression: A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erspective*. Rela In the Handbook of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 Phares, E. (1975). *Locus of control in personality*. Genreral Learning Press, New Jersey.
- Rosen, T., Pillemer, K., & Lachs, M. (2008). Resident to resident aggression in long-term care facilities: An understudied problem.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3*, 77–87.
- Rotter, J. B. (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J of Educational Research, 74*, 185–190.
- Seong, Y. A., & Kim, Y. J. (2018). A Study on Relative Aggression Related Variable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12), 513–521.
- Terracciano, A., McCrae, R., Brant, L., & Costa, P. (2005). Hierarchical linear modeling analyses of the NEO-PI-R scales in the Baltimore Longitudinal Study of Aging. *Psychological Aging, 20*, 493 - 506.
- Trompeter, H., Scholte, R., & Westerhof, G. (2011). Resident-to-resident relational aggression and subjective well-being in assisted living facilities. *Aging & Mental Health, 15*, 59 - 67.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 of Internal and External Control on the Relational Aggression's Perception of the Elderly in Care Facilities

Kim, Hee-Jung*, Ph.D., O.T., Cho, Moo-Sin*, M. Sc., O.T.,
Kim, Dong-Hyun**, Ph.D., P.T., S.W.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Kosin University/Professor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Gimcheon University/Professor

Objective : This study is to know how the internal and external control of the elderly in care facilities affect the relational aggression's perception.

Methods : I analyzed the internal and external control and the relational aggression's perception through a survey of the elderly in care facilities. For data collection, 148 of 165 questionnaires, excluding 17 questionnaires with missing questionnaire and middle-level abandonment,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Independent variables were the internal and external control, dependent variables were the relational aggression of negative and bullying behaviors, and controlled variables were general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Results :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ternal and external control depending on the length of a care facility.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recognition of relational aggression depending on the level of education, the period of admission, the presence of spouses, and the level of economy. Thir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comparison of relational aggression perceptions according to internal and external control. Fourth, internal and external control affected the recognition of relational aggression.

Conclusion :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internal and external control and relational aggression perception of the elderly living in the facilities, and the internal and external control affected the level of relational aggression perception of the elderly in the facilities.

Key words : Internal and External Control, Relational Aggression, Elderly in Care Facilities